

전주 드론축구 '부산을 평정하다'

드론축구단, 백스코 어린이날 큰잔치에 초청 부산 거리문화예술협회팀과 친선경기 벌여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축구 중추도시로서 저변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드론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전주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지난 5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초청돼 부산시 거리문화예술협회팀과 3회에 걸쳐 드론축구 친선경기를 펼쳤다. 앞서,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산업전시회에 초청돼 시범경기를 펼치고, 국내 최초로 드론축구공 보급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부산광역시시립도서관이 주최한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는 부산광역시의 5월 대표적 행사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첨단과학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드론축구 체험장은 전주시 선수단과 부산 거리문화예술협회

팀의 친선경기로 인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친선경기 후 진행된 드론체험은 부산시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도 체험에 참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관련, 드론축구는 최근 드론산업 기술이 급성장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시와 협력기관인 (사)캠텍종합기술원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신개념 e스포츠로, 탄소소재로 만든 전용보호기구로 드론을 감싸고 ICT기술을 접목해 첨단 레이저와 LED, 음향제어 등의 요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창단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열린 '2017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최첨단 ICT를 접목한 수준 높은 경기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부산에서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지난 5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초청돼 부산시 거리문화예술협회팀과 3회에 걸쳐 드론축구 친선경기를 펼쳤다.

열린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 행사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며 전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드론축구 중추도시로서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꿈꾸

는 전주시가 이번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통해 드론축구를 확실하게 부산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라며 "앞으로도 드론축구를 널리 확산시켜, 전주를 중심으로 드론을 매개로 한 새로운 스포츠산업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어선 안전위반 '꼼짝마라'

군산해경, 단속 강화키로 지난 한달만 해도 18건 적발

어선의 안전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한달간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건이 적발됐다"면서 "단속되는 위반행위 모두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역별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출항 신고 없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간 17급 어선이 적발됐고 무허가로 선박을 개조해 조업에 나선 무등록 선박도 군산 앞바다에서 단속됐다.

지난달 단속 어선은 ▲무허가 조업(수산업법) ▲선박지원법 위반(무면허)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특정 어구 소지와 개조금지) ▲어선법 위반(정원 초과, 선박서류 미비지) ▲선박안전조업 규칙 위반(출·입항 미신고)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등의 순이다.

이달 들어 1일 오후 6시에 군산시 내항 뚝배기대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1.9급 어선이 '어선법' 위반혐의로 단속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을 내서는 어선이 늘면서 각종 위반 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활동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단속활동에 대해 밝혔다. /김민근 기자

'강화유리 부수고 금은방 털다 그만'

10대 3명 경찰에 덜미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려한 걸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7)양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3시에 전주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 강화유리에 돌을 집어던져 부순 뒤, 내부로 들어갔지만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했다.

경찰은 금은방 인근 주변에서 2명을 검거했고, 도주한 1명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곧바로 붙잡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 50대 여성 차량 깔려 사망

5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4분께 전주시 용복동 한 마을길에서 강모(53·여)씨가 승용차 아래 쓰러져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강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바퀴 옆에 옆드린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고, 운전석 쪽 문이 열린 채 그 아래에 깔린 상태였다. 차량은 길가와 5m가량 아래로 떨어지는 언덕 사이에 걸쳐있었다. /김민근 기자

새만금방조제서 관광버스 전도

지난 6일 오후 4시41분께 전북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광버스는 경기도 용인에서 관광을 위해 새만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영화제에서도 U-20 월드컵 열기 '후끈'

전주시, 영화제 기간동안 월드컵 홍보체험관 운영

전주시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U-20월드컵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진행했던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 행사장(고사동 옥토주차장)에서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다.

U-20홍보체험관에서는 축구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참여해 축구 열기를 미리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홍보체험관에는 이번 대회에서 사 용하게 될 공인구인 크라사바(KRASAVA)와 대회 성공기원 메시지가 담긴 한지축구공이 전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미니 축구게임과 축구공 슈팅 게임, 트리아트 포토존, 대회 마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 행사장(고사동 옥토주차장)에서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체험관을 운영 가운데 외국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코트 '차오르미'와 함께 하는 플라 로이드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다.

장봉근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장은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앞으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시민들께서도 대회를 같이 참여해주

시고 즐겨주시기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오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대한민국과 기니와의 예선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국내 6개 도시에서 치러진다. /김민근 기자

'도로명주소의 마법, 알면 보입니다'

전주시, 영화제 방문객 대상 홍보활동 벌여

전주시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내방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제2기 전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전북도 도로명주소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번 홍보기간 중 영화제를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마법, 3가지만 알면 확실히 보입니다' 전단지 배부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방법과 길 찾기 편리성 등을 소개했다. 또,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현장에서 바로 검색해 알려주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찾는 내방객과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 등을 홍보하고 홍보의 사각지대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대상 방문 교육방식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